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2) 쉽게 씌어진 시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문학의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과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문학의 윤리적 가치란, 작가나 독자가 작품을 통해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한단다.

「쉽게 씌어진 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 첫째는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 둘째는 시에 나타나는 두 자아의 의미와 화해 과정, 그리고 마지막은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야.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인이면서 시 쓰는 걸 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화자는 모두가 고통받는 일제 강점기 현실을 알고 있어. 그런데 자신은 일본의 ‘육첩방’에서 무력하게 강의나 들으면서 너무 쉽게 시만 쓰고 있잖아? 바로 그 무기력함,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치열한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부끄러움인 거야. 이와 관련된 ‘늪은 교수의 강의’나 ‘침전’ 등의 의미를 꼼꼼하게 확인해 두어야 한단다.



아, 현실과의 괴리감이군요! 그럼 마지막에 ‘나’가 ‘나’에게 약속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 부분은 분열되었던 두 자아가 화해하는 장면이야. 시 속에는 무기력한 유학생의 삶을 사는 ‘현실적 자아’와,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성찰하는 ‘내면적 자아’가 있어. 마지막에 성찰을 마친 ‘내면적 자아’가 무력했던 ‘현실적 자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지. 그게 바로 ‘최초의 약속’이 가진 의미란다.





그렇군요. '밤비', '어둠'은 어둠의 이미지이자 암울한 시대,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 맞죠? '등불'과 '아침'은 밝음의 이미지이자 희망, 극복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맞아~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란다. '시대처럼 올 아침'은 '아침'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렴.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2) 쉽게 씌어진 시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창밖에 **밤비**(시간적 배경: 암울한 시대. 자기 성찰의 시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공간적 배경: 일본 - 화자가 일본에서 유학 중임이 드러남.)

시인(부정적 현실에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존재)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 1~2연: 일본에서 시를 쓰고 있는 '나'의 슬픈 현실 인식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높은 교수의 강의(작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들으러 간다.]([]: 현실적인 고민과 거리가 있는 지식인의 삶)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무기력함, 좌절감(하강적 이미지). 화자의 무기력함과 좌절감이 담겨 있으며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시어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하는 것일까?]([]: 무기력한 자신을 반성함.)

▶ 3~6연: 무기력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나'의 회의와 갈등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현실에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부끄러운 일이다.

▶ 7연: 일제 강점의 현실에서 시를 쓰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과 각성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 부정적 현실(일제 강점기)과 긍정적 미래(광복)를 대조하는 표현)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긍정적 미래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기
다리는 **최후의 나**(내면적 자아),

나(내면적 자아)는 **나**(현실적 자아)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두 자아의 화해. 내적 갈등의 해소. '고뇌 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의
지를 다짐'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8~10연: 최초의 악수를 통한 분열된 자아의 화해와 현실 극복 의지

- 운동주, 「**쉽게 씌어진 시**」(시상의 전개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2) 쉽게 섰어진 시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창밖에 **밤비**(시간적 배경: ____한 시대. _____의 시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공간적 배경: 일본 - 화자가 일본에서 ____ 중임이 드러남.)

시인(부정적 현실에 직접적으로 ____하지 못하는 존재)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 1~2연: 일본에서 시를 쓰고 있는 '나'의 슬픈 현실 인식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높은 교수의 강의(작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들으러 간다.]([]: 현실적인 고민과 ____가 있는 _____의 삶)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____, 좌절감(____적 이미지). **화자의 무기력함과 좌절감이 담겨 있으며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시어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하는 것일까?]([]: 무기력한 자신을 ____함.)

▶ 3~6연: _____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나'의 회의와 ____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섰어지는 것은(현실에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자신에 대한 _____)
부끄러운 일이다.

▶ 7연: 일제 강점의 현실에서 ____를 쓰는 것에 대한 _____과 각성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 부정적 현실(____)과 긍정적 미래(광복)를 대조하는 표현)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_____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____적 자아),

나(____적 자아)는 나(____적 자아)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두 자아의 ____의 해소. '고뇌 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짐'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8~10연: 최초의 악수를 통한 분열된 자아의 ____와 _____ 의지

- 운동주, 「**쉽게 섰어진 시**」(시상의 전개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2) 쉽게 씌어진 시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문학의 윤리적 기능

작가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와 같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각도로 질문 을 제기함.
독자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찰 해 보게 됨.
↓
문학은 삶의 의미 나 가치 를 깨닫게 함.

2. 「쉽게 씌어진 시」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반성적 , 성찰적 , 저항적
어조	독백적
제재	시가 쉽게 쓰이는 일의 부끄러움
주제	자아 성찰 을 통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로 주제를 형상화함. •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바탕으로 현실 극복의 자세를 보여 줌.

3.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밤비, 어둠	↔	등불, 아침
어둠 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암울한 시대, 부정적 현실		희망 , 극복 의지, 긍정적 미래

4. 화자의 자아 분열과 화합

‘나’	최후의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자아 • 암울한 시대 상황에 서 무기력한 삶을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적 자아 •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님.
최초의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자아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함. •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 주는 행동임.

5. 화자의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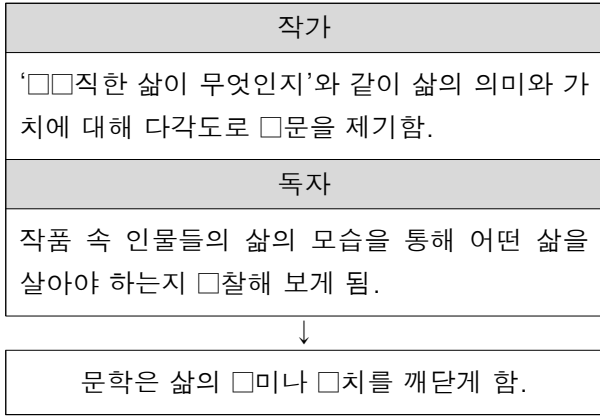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기력 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의 와 성찰
↓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미래에 대한 희망 으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6. 창작 시기를 고려한 시구의 의미 파악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이 작품이 창작된 1942년은 일제 의 탄압이 극심했다. 화자는 암울한 조국의 현실 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시 를 쓰는 스스로를 부끄럽 게 여기고 있다.

TEST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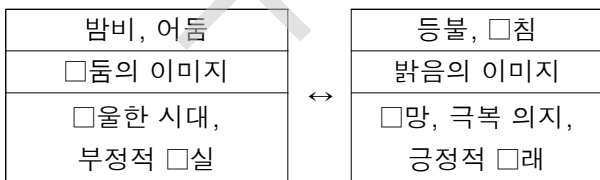
1. 문학의 윤리적 기능



2. 「쉽게 씌어진 시」 작품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성적, □찰적, □항적
어조	□백적
제재	□가 쉽게 쓰이는 일의 □끄□움
주제	□아 □찰을 통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립적 이미지의 시어로 주제를 형상화함. • 두 □아의 대립과 화해를 바탕으로 현실 극복의 자세를 보여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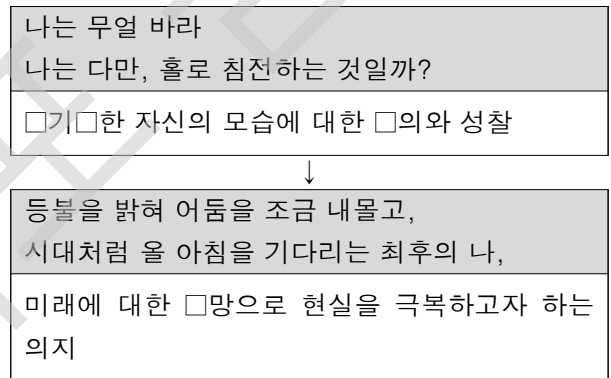
3.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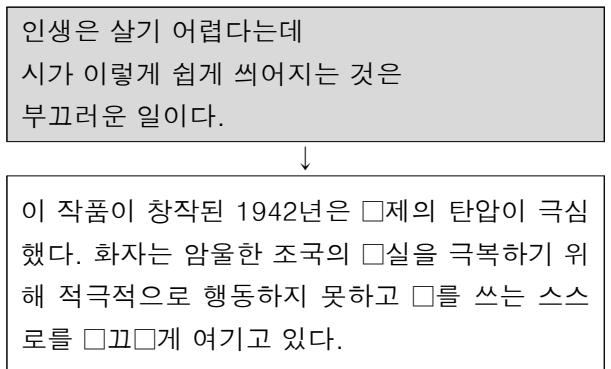
4. 화자의 자아 분열과 화합

‘나’	최후의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자아 • 암울한 시대 상황에 서 □기□한 삶을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적 자아 • 현실을 □복하려는 의지를 지님.
최초의 약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자아가 갈등을 극복하고 □해함. • □끄□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 주는 행동임.

5. 화자의 태도 변화



6. 창작 시기를 고려한 시구의 의미 파악



O / X 문제

【1~10】 「쉽게 씌어진 시」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십시오.

1.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인 ‘육첩방’은 화자에게 안락함을 주는 긍정적인 공간이다. (O / X)

2. 화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시가 쉽게 씌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O / X)

3. 시의 화자는 고향을 떠나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다. (O / X)

4. ‘밤비’는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정확히는 긍정적 인 자연물이다. (O / X)

5.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구절은 희망 없이 무기력한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낸다.
..... (O / X)

1. X 2. O 3. O 4. X 5. O

2027
고2 문학
비상

2027 고2 문학 비상 | 1(2)(2) 쉽게 씌어진 시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핵심 정리